

토끼처럼 튀어나온 앞니도 '라미네이트'하면 단정해진다?

기사입력 2012-04-03 19:28



[이송이 기자] '빠드렁니'는 앞으로 많이 튀어 나온 앞니를 일컫는 말이다. 앞니 두개가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지만 빠드렁니나 토끼 앞니 같이 치아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단정한 느낌을 주기 힘들다.

빠드렁니가 있으면 아무래도 웃기보다는 굵은 얼굴을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미소나 나오기 힘들게 된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소 거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태가 조금 심한 빠드렁니는 청소년기에 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싶고 친구들에게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심한 경우 대인 기피증이나 콤플렉스로까지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빠드렁니나 심하게 돌출된 앞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미네이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라미네이트는 무엇일까? 라미네이트는 '얇은 판을 씌우다'라는 의미로 인조손톱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즉 원하는 모양과 색깔 형태의 치아모양 세라믹 박편을 치아표면에 부착시킴으로써 손상되거나 변형 또는 변색된 앞니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원하는 시술방법이다.

라미네이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치아의 삭제량이 거의 없는 보존적 치료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하는 모양과 색을 부여할 수 있어 심미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라미네이트는 우수한 마모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며 시술시간 또한 짧다. 정밀하게 시술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으며 마취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이다.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할 때에는 심미교정전문의와 콤플렉스 치열의 교정범위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이가 비뚤어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을 때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을 다듬고 그 위에 0.5~0.8mm두께의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된다.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치아사이가 벌어진 경우,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 치아색깔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치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밝은 웃음을 갖기 원한다면 라미네이트 전문 치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68753>
